

People & Life

호남예술제 최고상 영광의 얼굴

“노래로 세계인 감동시키고 싶어” “리스트 ‘마제파’ 연주 도전 할래요”

국회의장상 차고운 양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최양이 본격적으로 성악공부를 시작한 건 남들보다 조금 늦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 지난해 호남예술제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성신여대 풍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최양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학교에 다니고 있다.

“매 주마다 서울에서 이론 수업을 하고 성악 레슨도 받아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예술고등학교생들이라 긴장도 되고 자극도 됩니다. 서울에 갈 때 정말 멋진 오페라를 감상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예요.” 최양은 “노래 하나로 언어가 다른 세계 각국의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차고운(상무고 3년)양은 오페라 ‘나비부인’의 비련의 여주인공을 꿈꾼다. 아름다운 아리아가 매력적인 푸치니의 ‘토스카’ 무대도 서고 싶다.

최근 막을 내린 제 54회 호남예술제에서 성악 부문 최고상과 국회의장상을 받은 차고운 양의 꿈은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성악가가 되는 것이다.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해요.”

최양은 이번 경연에서 첼레아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 중 ‘나는 천한 종’을 불러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 전원에게 최고 점수를 받은 최양은 특히 “호흡이 좋고 탁월한 음악성이 돋보였다”는 평가 함께 지나친 감정 표현만 다듬으면 대성할 재목이라는 칭찬도 받았다.

순천시립어린이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백계준 군



“큰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연습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최고상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제 54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중등부 최고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백계준(화순제일중 2년)군은 예선과 본선에서 쇼팽의 연습곡 ‘혁명’과 베토벤의 ‘소나타 16번’ 1악장을 연주, 영광을 안았다.

백군이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건 6살. 띄엄띄엄 레슨을 받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체계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릴 때 엄마 졸라서 피아노를 배울 때와는 달리 5학년 들어서면서부터는 피아노가 정말 좋아졌어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피아노 소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때 이후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호남 예술제에서 출전한 백군은 당시 은상을 받으며 자신감을 갖게 됐다.

백군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쇼팽과 리스트. 특히 최근에는 음반으로 들었던 리스트의 초절기고 연습곡 중 ‘마제파’가 마음에 들어 열심히 연습중이다.

“시험 때문에 요즘 조금 피아노 연습에 소홀했는데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 ‘마제파’를 본격적으로 연습하려고 해요. 새로운 곡을 칠 때마다 신나거든요.”

백군은 “앞으로 음대에 진학, 이론과 실기를 다 갖춘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빛고을장학금 기부 1위는 문근영·남상규씨



문근영



남상규 대표이사

이명박 대통령이 재선 대부분을 기부, 장학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기로 해 기부문화가 조명을 받는 가운데 광주시가 운영 중인 빛고을장학재단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은 영화배우 문근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빛고을장학재단에 모인 기부금은 총 44억6천만 원으로, 개인 중에서는 문근영과 부국철강 대표이사 남상규씨가 각 1억원을 기부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나무석 원장이 1천300만 원을 기부해 개인 2위를 기록했다.

기업 가운데는 OB백주가 2억5천만 원을 기부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가 1억원으로 2위,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5천만 원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문근영은 지난 2005~2007년 순천 기적의 도

서관에 3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을 냈고, 지난 2006년엔 소아암 치료비 5천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문근영은 2007년엔 해남군 송지면 팔각 마을 공부방 운영비 등으로 3억원을 쾌척하는 등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골 초등생의 ‘잇을수 없는’ 여름방학

강진 출향인사, 후배 외국역사체험 경비 제공

강진 군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을 보내게 됐다.

고향 출향인사 등이 십시일반 경비를 모아 중국 역사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재광주 강진향우회와 강진문화원, 강진백련문화회 등 모임에 참여하는 출향인사와 지역인사 등 20여명이 모두 1천500여만원의 체험여행 경비를 모아서 내놓았다.

강진이 고향인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 등이 지인과 함께 어린 새싹들에게 뜻깊은 일을 해보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 이번엔 결실을 보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강진 꿈나무 희망나래 달아주기 운동’을 벌여 매년 2~

3차례 고향의 초등학생들에게 외국 체험 기회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군동초교 4~6학년 학생 27명과 인솔교사 등 30여명은 오는 20~24일까지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와 자싱(嘉興)시 등 중국 내 항일 유적지 탐방에 나선다.

특히 농촌의 현실상 대부분 학생이 난생처음 외국여행에 나서거나 비행기를 타보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하다.

유명인 군동초교 교장은 6일 “사정이 여의치 않을 텐데 어린 후배들에게 ‘귀한 선물’을 마련해준 고향 선배들이 매우 고맙다”며 “이번 역사기행은 아이들이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언론인권광주센터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언론 보도와 인권’ 워크숍이 6일 화계와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언론인권광주센터 언론 피해 예방 워크숍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예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6일 교수와 변호사,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워크숍 발표자로 나선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덕모 교수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 보도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인권 침해 보도유형과 관례 등

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기자를 비롯한 참석자에게 설명했다.

언론포해상담소장 임선숙 변호사는 “특히 취재 일선에서 현장을 누비는 ‘현장기자’들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항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희정기자 khj@kwangju.co.kr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여성CEO가 ...’ 특강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6일 전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전남초등교육여성형성정년수회에 참석해 ‘여성CEO가 갖춰야 할 덕목과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주 북구청 탄소은행 업무평가 최우수



광주시 북구청(청장 송광운·사진 가운데)은 탄소은행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로부터 사업비로 받은 상금 2천700만 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IT 현장실습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이우철)는 오늘 14일까지 전남대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IT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제공>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김도중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전남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에 동참, 2천100여만 원을 후원했다.

내방 ▲이우철씨(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 ▲박규선·유근자씨 장남 흥진군 이동희(진월초 교장)·나현옥씨 장녀 보라양=11일(토) 오후 1시 서울 건설회관 2층 웨딩홀.
- ▲정형도(전 대부고 교사)씨 차남 용중(사범연수원생)군 서정범(아남전자)씨 장녀 미혜(서울 학원 강사)양=11일(토) 오후 5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
- ▲칠광회(순천고 7회 동창·회장 김문기) 모임=7일(화) 오후 7시 호남동 미술식당. 062-651-6296.
- ▲복성중 제9회 동창회(회장 장무성) 월례회=9일(목) 오후 6시30분 해대식당. 062-525-7393.
- ▲본량초교 제23회 동창회(회장

- 오희태) 정례회=11일(토) 낮 12시 황룡강변 신송산대교 아래. 011-666-0660.
- ▲구림초 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개최=11일(토) 오후 6시30분 원앙회관. 062-375-0770.
- ▲보성중학교 14회 총동창회(회장 강진성)=11일(토)~12일(일) 보성 다비치콘도. 010-3605-0505.

종친회

-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영) 정기모임=9일(목) 오후 6시30분 바다이야기. 062-675-5250.
- ▲국부공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공양진) 월례회=13일(월) 오후 7시 북구 유동 합양롯데. 062-515-5757.

일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용 사용할 경우 062-1366.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오치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 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심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비에 한함). 062-365-8228.
- ▲광주물매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

- 동분서, 현장답사 직강인 스테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임검정 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부음

- ▲홍달순씨 별세 김중환(사업)·종상(사업)·종근(금호고교 부사장)·종채(KT 지점장)·종현·명숙씨 모친상 신장식(전 광주시청)·이원진(경신중 교감)·이정인(사업)씨 빙모상=발인 8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분향소. 062-227-4000.
- ▲임종상씨 별세 영택(금호타이어)·윤택(강진중학교 교사)·순자·순자·정자·유자씨 부친상=발인 8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이주봉씨 별세 윤선·윤호·성례·성근·성희·성화씨 부친상=발인 8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 ▲김중구씨 별세 정석·영석·정란·해선씨 부친상=발인 8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 ▲김한수씨 별세 태형·범석·미형·선형씨 부친상=발인 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김용채씨 별세 성관·성혁·미순·명희·명자·미희씨 부친상=발인 7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미리! 미리! 프리드 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선진국형 정액시스템 프리드

현대종합상조

기밀번호 1688-3740